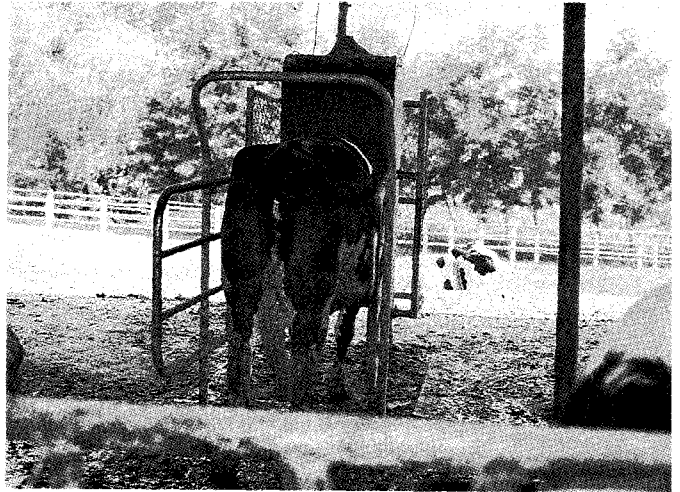


“젖소의 사료급여 이렇게 하자”

정 부 진

한일사료(주) 마케팅부 차장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배합사료는 그 원료를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낙농사료로 주가 되어야 할 조사료는 그 재배기반이 매우 취약함으로써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여건에서 사료를 효과적으로 급여해서 양질의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우리 낙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실정

목장을 직접 가보면 어느 목장할 것없이 조사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여름철에는 귀찮아서 풀을 먹이지 못하고 봄·겨울에는 볏짚이 전부인 현상이 우리의 안타까운 실정이다. 배합사료는 우사안에서 사람처럼 하루 세끼를 바가지로 조금씩 주고 그외의 시간에는 모두 운동장에서 조악한 볏짚만을 집어먹고 있다.

600kg이 넘는 소가 이렇게 먹여가지고는 자기몸을 유지하는데도 부족할 것만 같아 보인다.

간혹 티엠알(T·M·R)급여방식을 채택해 비트 펄프나 알팔파큐브등을 구입해서 무제한 급여하는 목장도 있지만 원료구입이 일정치 못하고 시행방법

이 정확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도 종종 볼수 있다.

특히 많은 우리의 목장에서는 배합사료는 아가워서 적게 주고 볏짚등 조사료는 없어서 제한급여하는 잘못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컴퓨터 계산의 모순

몇몇 사료회사와 개인업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젖소의 요구량에 맞도록 사료급여량을 계산하여 급여토록 권장하는 시스템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젖소 급여량 전산프로그램」이니 「최적사료 급여 프로그램」이니 하면서 마치 젖소사료급여의 모든 문제를 컴퓨터가 완벽히 해결할 것처럼 야단들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실제로 목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과 비현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한 목장에서 갖고 있는 소개체마다 능력, 사료 섭취량, 산차, 건강상태, 분만후일수가 각각 다르고 또 개체관리를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조사료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다.

수단그라스는 예취시기마다 영양소 함량이 다르고 엔실리지 품질도 집집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며 그 섭취량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또 그 영양소 함량을 정확히 측정한다

해도 급여량에 있어서 벗짚을 어렵잡아 한마리가 대충 2kg정도 먹는 것같고 엔실리지는 두 니어커를 10마리가 먹고...

이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료급여량을 계산한단 말인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사료급여량계산이 완벽하다고 자랑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이 먹여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실정에서는 젖소에게 요구하는 영양을 과부족없이 급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어느 목장할 것 없이 배가 고파있는 우리의 젖소에게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많이 섭취토록 해서 그소가 갖고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힘이 들어서, 귀찮아서, 구입가격이 비싸서 등등의 이유로 조사료 확보를 게을리 하는 것은 목장의 수익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살찐 상태를 주시해야

그렇다면 배합사료는 젖소에게 어느정도 급여하는 것이 좋은가?

체중과 산차에 따라 유량과 유지율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급여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보다는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그소의 살찐 상태에 따라 배합사료량을 늘여주거나 줄여주는 것이다.

다 아는바대로 과비된 젖소는 난산이나 산후 사료섭취량이 적게 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지나치게 마른 소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만후 체력약화로 도태가 우려되고 수태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디컨디션이라는 살찐 상태가 적당히 되도록 배합사료를 조절해 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유유생산과 송아지 성장에 적당한 몸매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목장마다 여건에 따르자

젖소의 사료급여는 몇가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조사료를 많이 급여해야 한다.」

「수분이 많은 사료는 마른사료와 함께 급여해야 한다.」

「배합사료를 다량 급여할 경우에는 자주 나누어 급여해야 한다.」

「연중 급여사료는 가능한 한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같은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젖소의 소화생리와 특성을 고려한 사료급여 관리의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젖소의 사료급여는 농장의 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다.

농장마다 여건이 다르다.

방목할 수 있을 정도의 초지가 있는 목장, 연중 엔실리지를 급여하는 목장, 굴피, 맥주박등 부산물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목장.

사육시설에서도 우사에서만 기르는 목장, 운동장에 사료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목장등 그야말로 다양각색이다.

따라서 목장에 따라서는 벗짚과 배합사료만을 급여하고도 성적이 우수한 목장이 있는가 하면 T·M·R급여체계로 하더라도 실패하는 목장이 있다.

이것은 목장여건에 맞게 사료급여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수익이 많은 낙농경영을 위해서 급여시설도 보완해야겠지만 목장실정에 맞는 급여체계의 도입·시행으로 가장 경제적인 사료급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목장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자기목장에 맞는 사료급여체계를 실시하면 보다 성공적인 사료급여관리가 목장마다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자기몸에 맞지 않는 옷은 아무리 비싼옷이라도 좋은 것이 아니다.